

# 줄지않는 산재...호남권 이틀에 1명 꼴 사망

### 아파트 건설 늘며 지난해 202명 사망·1만51명 부상·질병 광주·고용청 건수 전국 유일 증가...건설현장 사고 두배 늘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 산업 재해 사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지난 28일)에도 광주 의 한 공사장에서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사망하는 등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건물철거 현장에서 2m 높이 벽돌담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이모(76)씨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2시40분께 숨졌다.

당시 이씨는 굴삭기가 먼저 지반을 다지면 다른 인부들과 후속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날 고용됐으며 안전모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굴삭기 운전기사,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7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산재로 202명이 숨졌고 1만51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앓았다.

광주청 산재 발생건수는 전국 6개 지방청 중 유일하게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광주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만94명(사망 192명)으로 지난해 159명 늘었다. 지난 2015년 재해자수

(73)씨가 22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22층 옥상에서 안전줄을 타고 내려가며 외벽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줄이 풀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소장 등이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8일에는 북구 연제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김모(48)씨가 지반다짐용 말뚝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김씨는 동료 박모(57)씨가 중장비(페이로더)를 이용해 운반하던 말뚝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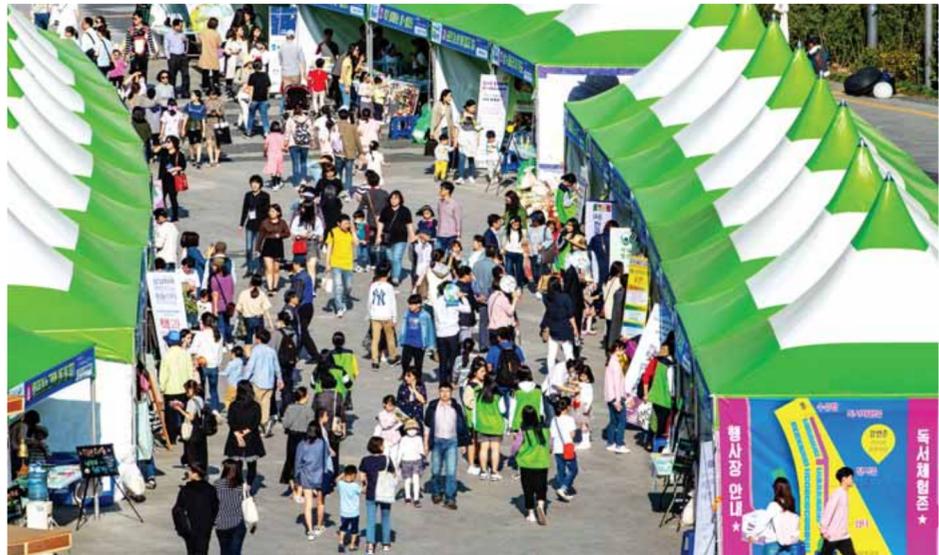
당시 현장에는 작업 관리자가 없었으며 중장비 작업 변경으로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는 교육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 소장과 박씨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산재가 늘자 이를 관리·감독하는 광주노동청도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는 모두 14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7명)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이 중 추락사가 12건으로 대부분(86%)을 차지했다.

심창주 광주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광주·전남 지역은 건설현장이 많고 본격적인 공사 시기인 만큼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감독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 광장 도서관 문화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난 28일 열린 제7회 도서관 문화제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산구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 청소 근로자 부상 방지 무게 초과 봉투 배출 단속

지난해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졌지만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광주일보 5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 광산구가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 채택했다.

광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환경미화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75ℓ 종량제 봉투(배출 허용 무게 19kg)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 종량제봉투는 5·10·20·30·50·75·100ℓ 등 모두 7종이 됐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수십kg짜리 종

량제 봉투를 들어 올리다 어깨·허리 근육이 파열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광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광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명이 산업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100ℓ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법적 최대 허용 무게는 25kg, 50ℓ는 13kg이다. 하지만 테이프나 압축기를 사용해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75ℓ 종량제 봉투 판매와 함께 무게를 초과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무게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일본 토종 식물 '팽이눈' 영광서도 서식

### 100㎡에 500여 개체

일본 고유 식물로 알려진 팽이눈(사진)이 영광군에서도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물자원관은 영광군청과 함께 이날 초 영광군 일대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팽이눈의 국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영광에서 발견된 팽이눈은 일본의 팽이눈 DNA와 99.7% 일치했다.

장미목 범의귀과에 속하는 팽이눈은 크기가 10cm 내외로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수술이 4개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산지 내 물이 흐르는 습한 곳 주변에 주로 분포한다. 이번에 확인된 팽이눈 자생지 면적은



100㎡로, 500여 개체가 서식하면서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과거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생물의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 해질 19:17 | 달 뜨기 19:28 | 달 지기 06:02

만개한 봄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이 구름이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5/22	보성	구름많음	12/18
목포	구름많음	15/20	순천	구름많음	14/19
여수	비온뒤맑	14/19	영광	구름많음	14/22
나주	구름많음	13/21	진도	비온뒤맑	14/20
완도	비온뒤맑	14/20	전주	구름많음	14/24
구례	구름많음	12/20	군산	구름많음	13/23
강진	구름많음	14/19	남원	구름많음	12/21
해남	구름많음	14/20	홍산도	구름많음	12/18
장성	구름많음	13/20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낮음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5/1(화)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	☁	☁	☁	☁	☁	☁
17/23	17/24	11/18	10/23	11/25	11/25	14/22

## 화창한 5월 첫 주...수요일 전국 비

### 광주·전남 강수량 2~8mm

어린이날 등 연휴가 낀 5월 첫 주(5월 1일부터 5월7일)에 광주·전남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평년과 비슷한 포근한 기온이 예상되며, 5월 2일에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 기온이 잠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7일(어린이날 대체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끼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1일(근로자의 날)에는

낮 최고기온이 18~24도, 어린이날 5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8~25도로 예상되는 등 연휴기간 동안 낮 최고기온은 16~25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2~8mm 수준으로, 나들이나 여행을 떠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했지만 국내 대기정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미세먼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정부,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 오늘부터 피해센터 운영...상담·수사·소송 등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검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 담도가능)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99KW \* 350기)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1차 99KW (잔여분) **분양완료**
- 제주 한림읍 2차 99KW (잔여분) **79기**
- 경북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12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남 천안시 1차 99KW (잔여분) **1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시: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국도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힐 리조트, 아덴힐CC, 캐슬릭스제주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대학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용공, 싱기풀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 1644-4192  
H) 010-5110-5660